

2020학년도 Masterpiece 모의고사 해설지

영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2020 Masterpiece 모의고사 소개 0
- I. 해설 1회 1 ~ 41
- II. 해설 2회 42 ~ 79
- III. 해설 3회 80 ~ 115

* 각 해설 첫 페이지에 빠른 정답, EBS 출처, 피드백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거야

‘Masterpiece.’ 오르비북스 영어과의 두 베스트셀러 저자가 만나 하나의 ‘걸작’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구성 및 각 문항 하나하나 전통적인 평가원 수능의 변하지 않는 어휘, 구성, 논리를 따라가면서도, 최신 평가원 수능의 트렌드를 다 반영한 영어 모의고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2019학년도 수능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5%에 달하면서, 절평이지만 난이도는 낮추지 않겠다는 평가원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신유형 의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지칭 문제가 사라지면서 ‘유형적으로도’ 난이도 상승을 피했습니다. 하여 퀄리티는 좋지만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는 평이 많았던 2019 Masterpiece는, 수능 후 그 가치를 알아봐주신 분이 더욱 많았습니다. 올해 2020 Masterpiece에서는, 더 고른 난이도 배치에 힘쓰고 퀄리티를 높여, 대략 1등급 비율 6~7%의 수능을 최대한 모방하였습니다. 대치동에서 퍼지는 현장 모의고사나 인강 모의고사가 아닌, 시중 출판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퀄리티와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능영어 전문가인 두 저자가, 그 어느 모의고사보다 ‘풍부하고, 명확하며, 직관적인 해설’을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풀고 버리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각 저자의 개성이 잘 드러난 알찬 해설을 통해 수능영어 전반의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Masterpiece,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듣기]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 그해 1월, 곧 듣기가 발목을 잡을 때가 올 것이라 자신 있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그것이 증명되어왔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평가원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듣기 영역은 점점 일치/불일치를 따지는 단순한 풀이법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듣기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저격하여 논리적 실수를 범하도록 출제될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시도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5년간의 철저한 듣기 기출 분석을 통한 듣기 독학서 집필 경험.
3년간의 모의고사 출제하며 얻게된 통찰력.
이 긴 시간을 모두 Masterpiece 모의고사 3회분에 담았습니다.

16~17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EBS 연계하여 제작했습니다.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된 문제도 있습니다. 듣기 연계 방식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몇 문제는 유형을 변형하되 스크립트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듣기의 논리와 단어 문장구조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여태까지 잘 보지 못했던 시도를 한 몇 문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행을 깨뜨린 것이라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역대 기출된 문제와 EBS 연계 교재에 나온 것만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 처음 본다고 생각하는 문제 스타일, 표현들은 모두 기출되었거나 EBS 연계 교재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올해는 문제 자체에는 최대한 힘을 뺐습니다. 대신 해설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단순한 해설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고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유형에 대한 접근법, 평가원이 자주 쓰는 오답 선택지를 구성하는 원리, 실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했으니 맞힌 문제들의 해설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원은 자신들이 만든 관행들을 깨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쌓인 데이터로 실전에 맞지 않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실전이며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훈 드림.

듣기 질의응답: bananatrain2019@naver.com / <https://open.kakao.com/o/sx993OZ> ■ QR 코드(듣기 및 부가자료):

[독해]

독해 저자는 2016년(2017학년도), KISS EBS N제로 수능 전 한 달 **오르비북스 판매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2018학년도), 평가원을 피하고자 수능 2주 전에 출판한 KISS EBS 선별 157제 전자책에서 **어휘, 빈칸, 문삽이 자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2018년(2019학년도), 직접연계 '7개 중 6개'가 수능 직전 출간한 전자책 KISS EBS 선별 153에 있었고, 빈칸 자리 또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평가원이 좋아하는 지문, 문제 출제의 원리'를 잘 아는 저자이고, 그만큼 연구를 치열하게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자랑이 섞인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이 Masterpiece 모의고사의 첫 출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인강 강사 분들의 모의고사와 함께 언급되는 큰 호응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후 더욱 연구하고 갈고닦아 현재 수능에 가장 근접한 모의고사를 집필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이번 Masterpiece 모의고사의 킬러 비연계 자리에는, 바로 그 2015, 2016 KISS EBS 선별 지문 중에서도, '최고 지문들'을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렇게 3,4년 전 EBS 지문을 선별 변형 수록한 이유로는,

1. 당시 EBS의 모든 지문 中 저자가 고심 끝에 '가장 평가원스러운 지문'을 선별 및 변형한 것이고,
2. 연계 EBS 교재들은 '평가원의 검수'를 이미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는 지문들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으며,
3. 평가원에서 3, 4년 전 지문의 소재, 논리 등을 참고하는 경향을 개인적으로 목격하고 있기에 수록하였습니다.

* 2015, 2016년에 영어 EBS를 열심히 보신 분께서는 참고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 Masterpiece 모의고사의 좋은 문항이, 독해 한정 1/3 정도 섞여 있습니다. 참고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1회: 18, 19, 21, 34, 41~45

- 2회: 18, 19

- 3회: 18, 19, 37, 39, 40~45

문항 별 대략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28번: **간접연계**로 EBS 지문에서 '소재를 따와'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입니다. 다른 사설 모의의 경우 이 부분을 그냥 비연계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EBS를 열심히 공부하였을 경우 '확실히' 소재 연계가 느껴집니다(특히 21~28). 따라서 2020 Masterpiece의 경우, 특히 20~24에 해당하는 대의파악 문제를, 수능과 동일한 **간접연계의 느낌 및 난이도**를 주어 정성 들여 제작하였습니다. 21번 **신유형 '의미'** 문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쉬운 유형은 아니지만 특히 1회의 21번은 '난이도 최상'의 21번을 출제해보았으니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을 내는 **논리** 또한 최근 수능, 모평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니, '쉽지 않은' 수능 대의파악의 대비를 이 문제들로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2. 29, 30, 31, 32, 35, 36, 38: **직접연계**입니다. 2020학년도 KISS EBS 선별 **최고 지문들**을 변형하였습니다. 매년 모의평가와 수능마다 **제 선별 분석에서 평가원과 '똑같은'** 문제가 여러 개 나옵니다. EBS를 보지 않았다면 난이도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예전 및 올해 EBS 변형이 수록된 모의고사가 아니라, 모두 '**평가원 퀄리티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훨씬 더 얻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3. 33, 34, 37, 39, 40, 41~42: **비연계 킬러파트**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극상 킬러를 배치하기보다, 난이도 **중상~상의 문제들을 골고루** 배치하였습니다. 당연히 수능의 **논리 출제 방식**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영어를 넘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4. 43~45: 비연계로 저자가 지문을 따와 평가원의 논리에 맞게, '**훈훈하게 ㅎㅎ**' 구성하였습니다.

풀고 그냥 버리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풀고 분석하면서 단어, 해석, 논리 측면에서 **얻어가는 것이 훨씬 많은 모의고사이길** 바랍니다. 이 3회의 모의고사를 통해 2020학년도 수능영어가 어떠한 스타일과 난이도로 나오더라도 '어? 되게 익숙하네?' 느낌이 들 수 있기를, 안정감 있게 **1등급을 쟁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현 드림.

독해 질의응답: sheanlee23@gmail.com / sheant.kr

[검토진]

서민수 신현진 이태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Masterpiece 모의고사 1회 해설지

영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I. 빠른 정답&출처 1
- II. 피드백 2
- III. 해설 1회 1~17번 3~17
- IV. 해설 1회 18~30번 18~28
- V. 해설 1회 31~45번 29~41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Masterpiece 모의고사 1회 피드백

(꼼꼼한 피드백이 없는 실전 모의고사는 바둑을 두고 복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1. 성함: _____ 2. MP 1회(최대 65분 타임어택) 점수: _____
3. 1회 전반적 운영 복기(ex: 킬러 주제, 제목에서 시간 운영 실패 /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연계 즉 어휘, 빈칸, 흐름, 순서 삽입 연계 느꼈는가 / 킬러 빈칸, 순서, 삽입에서 논리를 잡았는가, 시간 운영을 잘 했는가 etc.): _____
4. 문항 당 코멘트(항상 단어, 해석(구문), 논리(독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피드백하자.)

오답 or 애매 문항	챙길 단어	어려운 해석	답이 되는 논리
ex) 38번	* invalidate: 무효로 하다 * effectiveness: 효과	* The success of this technique depends on our integrity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in the interest of true justice, we are bringing up, ourselves, information that hurts our own case. → as evidenced가 integrity 수식. that 뒤 in the interest of라는 표현 후 S V 시작,	* 읽으면서 5번 앞뒤 문장이 둘 다 선수 치기의 부정적 효과이기 때문에 논리의 충돌이 있는데 이를 느끼지 못했다. 문삽은 지시어가 없다면 분명 '논리'로 승부를 보니 잘 파악하도록 하자.

Masterpiece #1(1, 2ⓐ)

◆ 1~2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1~2번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해설을 작성했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풀었다면 꼭! 해설을 천천히 읽어주길 바라.

첫 번째, 유추하기 유형의 선택지는 미리 보는 것이 필수다.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상황에 적절한 말 유형은 해설에서 유추하기 유형이라고 할 거야. 이 유추하기 유형은 상위권들도 많은 실수를 하는 유형이야. 그러니 다른 유형들은 미리 보지 않더라도 이 유형들만큼은 꼭 선택지를 미리 읽어줘. 해설은 선택지를 미리 읽었다는 전제하에 작성했어. **평가원이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와 선택지를 미리 읽으면 어떻게 교묘한 오답 선택지를 피해갈 수 있는지를** 해설에 녹여 놓았어.

두 번째, 앞네모와 뒷네모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상위권, 하위권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지나치고 있는 개념이야. 상위권들의 실수는 거의 여기서 나와. 반대로, 하위권들은 이 개념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정답률을 확 올릴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설에서..

1. 정답: ④

M: Kylie, you were amazing in the final rehearsal for the concert!

W: Thank you, Mr. Wilson. I practiced really hard.

M: I can tell you did. **And who made your costume?** It's fantastic.

W: _____

- ① 그래도 그녀는 제일 대단한 디자이너예요.
- ② 저는 당신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 ③ 저는 제가 실수할까봐 긴장돼요.
- ④ **제 이모께서 이 콘서트를 위해 저에게 주셨어요.**
- ⑤ 제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잘 부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어휘] final rehearsal 최종 리허설 / costume 의상

[해설]

Kylie가 최종 리허설을 마친 후, Mr. Wilson이 Kylie에게 정말 멋졌다고 말한 후, 의상은 누가 만들어주었는지 물어보고 있어. 따라서, 이모가 콘서트를 위해서 주었다고 말하는 ④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야.

[오답 뽐내기]

- ① 매력적인 오답이었어. 선택지에 제 3자가 나올 때는, 스크립트에도 제 3자가 등장할 거라는 예상을 해야 해. 그런데 여기서 그 예상이 빗나갔지? 그러니 정답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어. ‘남자가 누가 의상을 만들어 줬는지 물어봤으니 she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이 의문은 두 가지 근거로 잠재울 수 있어. 첫 번째, she는 **대명사**야. 앞에 어떤 제 3자가 이미 언급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though의 뉘앙스를 파악해야 해. 구어체에서 문장 끝에 오는 though는 뉘앙스가 정말 중요해. 실제

로 많이 기출된 표현이기도 해. 이 though는 상대방의 말에 뭔가 수긍하면서도 약간은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쓰여. ‘그래도..’ 또는 ‘그렇지만..’의 느낌이야. 남자가 그냥 의상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물어봤는데 though라는 표현이 쓰이는 건 정말 어색해. “그 의상은 누가 만들어줬니?” → “그래도 그녀는 대단한 디자이너예요.” 이제 뭐가 이상한 줄 알겠지?

- ② 평가원이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두 사람의 입장을 바꾸는 거야. 지금 콘서트는 여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해. 게다가 남자의 마지막 말은 여자의 의상에 관한 말이었어. 이 선택지는 전혀 무관한 말을 하고 있어.
- ③ 남녀의 입장은 잘 맞아. 하지만 의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어.
- ⑤ 이 선택지는 남자가 “Who taught you singing?”라고 말했다면 정답이 될 수 있어. 단순히 남자의 마지막 말에 Who가 있었다고 해서 고르면 안 돼.

2. 정답: ③

W: Dean, the schedule for our workshop next week is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M: Finally! I hope it's not on Thursday. It's my mom's birthday.

W: It's July 23rd and luckily, it's Friday.

M: _____

- ① 날 믿어. 정말 재밌을 거야.
- ② 내 생각에는, 목요일이 더 괜찮아.
- ③ **좋아. 그게(workshop) 파티랑 겹치지 않겠어.**
- ④ 미안해. 네 생일에 가지 못할 것 같아.
- ⑤ 이해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어휘] post 게시하다 / bulletin board 게시판 / overlap 겹치다
make it 약속을 지키다

[해설]

워크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자와 여자는 직장 동료인 것 같아. 여자가 워크샵 일정이 게시되었다고 하자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생신인 목요일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는 다행히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답은? ③번이야. overlap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앞네모와 뒷네모**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1번과 달리 2번의 선택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어. ①번을 예시로 들면 Trust me. 와 It'll be fun. 으로 말이야. 여기서 앞의 Trust me.를 앞네모, 뒤의 It'll be fun.을 뒷네모라고 불러. ①번부터 ⑤번까지의 앞네모를 한 번 살펴볼까?

① Trust me.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을 믿으라 하고 있어. 여자가 확신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야. 스크립트에서 여자가 뭔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 여기다가 뒷

Masterpiece #1(2Ⓣ, 3Ⓣ)

네모 It'll be fun.을 살짝 엿어서 생각해볼까? 남자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망설이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새로 생긴 놀이공원에 놀러가자고 했는데 여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정도?

② In my opinion,

남자가 의견을 말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여자가 남자에게 의견을 물어본 상황, 또는 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한 상황. 둘 중 어느 상황이든 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 남자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야. 여기에 뒷네모 Thursday is better.을 더하면, 그 주제가 요일을 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참고로 이 선택지는 매력적인 오답이었어 그 이유는 [오답 뽀개기]에서 알려줄게 :)

③ Great.

말 그대로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고 좋다고 한 거야. 그러면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지?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를 생각할 수 있어. 실제로 이 선택지가 정답이었는데 여자가 “운이 좋게도, 금요일이야.”라고 말하고 있어. 남자는 목요일이 아니길 바랐는데 여자가 금요일이라고 하니 남자에게 좋은 소식이지. 뒷네모의 overlap이라는 단어를 몰랐더라도 다른 선택지들의 앞네모를 보고 다 지워냈으면 ③번을 정답으로 고르는데 힘들지 않았을 거야.

④ Sorry,

남자가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남자가 미안할만한 내용이 스크립트에 나와야 해. 뒷네모 I can't make it on your birthday.와 같이 생각해 보면 여자가 생일파티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는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지.

⑤ I understand.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만한 상황이 올 거라고 유추할 수 있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뒷네모 It's not easy to prepare for it.과 같이 보면, 여자가 어떤 것을 준비하느라 힘들어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어.

미안.. 아직 해설 안 끝났어..! 모든 문제가 이렇지는 않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도록..ㅎ

[오답 뽀개기]

- ① 워크샵 일정에 관한 이야기야. 남자가 여자에게 놀러가자고 하거나, 여자가 망설이는 내용은 없어.
- ② 이런 선택지를 평가원이 좋아해. 단순히 여자의 마지막 말만 듣는다면 적절한 것 같거든. 하지만! 남자는 목요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어. 그리고 스크립트에는 이미 워크샵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의 의견은 필요가 없어!
- ④ 생일의 주인공은? 남자의 어머니야. 여자의 생일은 몰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는 선택지가 많이 나온다고 앞에서 말했었지? 신경 써줘야 해.
- ⑤ 여자가 뭔가를 준비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야.

◆ 3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3번 유형을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간 큰일 나. 실제로 이 유형은 학생들이 대충 듣고 답을 고른 후, 독해로 넘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틀리고 나면 절대로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지 말자고 다짐을 하는데 이걸 잘못 된 거야. 너희들이 틀리는 이유는 정답의 근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야. 앞부분만 들어도 된다? 그런 강사가 있다면 거르면 돼. 정답의 근거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100% 그렇지는 않아. 1회 3번 문제가 그런 경우야. 이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를 모티브로 만들었어. 정답의 근거를 제대로 찾고 나서 그때 넘어가야 해. 이 문제는 책에서 이틀에 걸쳐 설명할 정도로 중요해. 독해에서도 같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야.

3. 정답: ①

M: If you hate washing dishes, your favorite appliance in your house is probably your trusty dishwasher. But, how long have you kept your current dishwasher? How often does it break down? And how much have you spent on repairing it? If you're constantly getting repairs done on your dishwasher, it is probably time to give up and get a new one. Let me introduce you to our brand-new dishwasher, the DW-2000. It has a lifespan of 12 years and a warranty of 10 years. Under the warranty period, we send our experienced technicians to solve any problems with your dishwasher. There is no reason not to choose our DW-2000. If you feel like buying a new dishwasher, just give us a call.

[어휘] wash dishes 설거지를 하다 / appliance 가전제품
trusty 믿을만한 (= trustworthy, reliable)
current 현재의 / break down 고장 나다
constant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 give up 포기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 lifespan 수명 / warranty 보증기간
experienced 숙련된 / technician 기술자, 전문가
feel like ~ing ~를 하고 싶다

[해설]

회색 바탕은 도입부, 진한 글씨는 주제문, 밑줄은 부연 설명이야.

Let me introduce you to our brand-new dishwasher, the DW-2000.
= ① 새롭게 출시된 식기세척기를 홍보하려고

주제문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정말 쉬웠던 문제였어. 앞부분만 듣고 ⑤번을 선택한 학생들 있지? [오답 뽀개기]를 통해 왜 너희들이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앞으로는 틀리지 않을지 알아볼 거야.

Masterpiece #1(3Ⓣ)

[오답 뽀개기]

- ② 도입부에 '고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긴 해. 하지만 **사과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사과하는 말은 이런식으로 시작하지 않아. 처음부터 굽히고 들어가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기 마련이야.
- ③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오히려 **주제문** 이후의 **부연 설명**을 듣다가 혹했을 거야. 주제문이 나오고 나서는 더 들을 필요가 없어. 괜히 더 듣다가 아는 단어가 나와서 답을 고치면 안 돼. 알겠지?
- ④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물어보기는 했지만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 ⑤ 이 선택지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해. 왜냐하면 말의 목적/주제 유형의 스크립트 구성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야. 그냥 끝까지 들으면 된다? 아냐. 구성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도입부**와 **부연 설명** 사이에 위치한 **주제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할 확률이 높아. 10문제 중 6~7문제 정도는 쉬워. 그런데 수능에서 어려운 3~4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문제는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를 모티브로 만들었어.** 이번에 틀렸다면 수능에서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으니 조심해.

⑤번과 관련해서 한 문제를 풀어보자. 16학년도 수능에 나온 문제야. 아래 스크립트를 읽고 정답을 골라봐.

3.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 Hello, listeners! This is One Minute Health. Nowadays more and more office workers have been reporting troubles caused by long hours spent in front of the monitor.

- ① 컴퓨터 사용 시 올바른 자세에 대해 조언하려고
- ② 컴퓨터 사용 중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 ③ 컴퓨터 사용 관련 절전 요령을 설명하려고
- ④ 회사 내 컴퓨터 보안 강화 방침을 안내하려고
- ⑤ 직장 내 컴퓨터 개인 용무 사용 자제를 당부하려고

몇 번이 정답일까?

정답을 꼭 고른 후에 넘어가 줘.

스포 방지 여백

많은 학생들이 ②번을 골랐을 거야. 미안하지만 정답은 ①번이야. 어떻게 된 걸까? 그 이유는 원래 문제에서 ⑤번을 고른 이유와 같아. 도입부만 듣고 너희들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야. 스크립트에 분명 너무 오래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나왔어. 그러니 머릿속에서 '장기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네. 그럼 뭐.. 휴식을 취해야겠지? 어디보자~ 오호! 여기 있네. ②번!' ②번이 맞는 것 같지? 말이 되니까. 근데.. 말이 되는 것과 정답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을 때, 제대로 배운 학생들은 "주어진 스크립트만 봐서는 정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라고 대답했을 거야. 실제로 정답은 그 이후 스크립트를 봐야만 고를 수 있었어. 스크립트를 확인해보자.

W: Hello, listeners! This is One Minute Health. Nowadays more and more office workers have been reporting troubles caused by long hours spent in front of the monitor. The biggest problems are damage to the eyes and stress on the neck and back. Improper posture is the main cause. Here are some useful tips for keeping proper posture while you use your computer. First, make sure to sit 50 to 70 centimeters away from the monitor. Sitting too close to your monitor can hurt your eyes. Second, to lessen the stress on your neck, you need to sit directly in front of your monitor, not to the left or to the right. Lastly, try to keep your knees at a right angle to reduce the pressure on your back. Remember that proper posture is the first step to healthy computer use. This has been Brenda Smith at One Minute Health.

회색 바탕의 도입부(문제점)가 나온 다음에 **주제문인 올바른 자세에 대한 유용한 팁(해결책)**을 준다고 말을 한 후 **예시가** 시작돼. 그러니 정답은 **도입부**가 아닌 **주제문**에서 찾은 ①번이야.

이런 글의 구조를 P-S 구조라고 해. Problem-Solution의 약자야. **도입부에 P가 나오면** 뇌피셜로 S를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주제문인 S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오면? 독해로 넘어가야지. 계속 듣다가는 아는 단어에 혹해서 오답을 고를 수가 있어. P-S 구조는 방금 다룬 것처럼 단순한 구조부터 복잡한 구조까지 다양해. 그런데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다루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 4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바로 앞에서 다룬 3번과 비슷한 전개인 경우가 많아. 3번은 화자가 한 명이고, 4번은 화자가 두 명인 차이가 있을 뿐이야. 4번은 **여자/남자의 의견** 또는 **두 사람이 말하는 주제** 이렇게 두 유형 중에 하나가 나와. 두 유형 모두 P-S 구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쉬워. 쉬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 왜 틀리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내가 분석해보니 이유는 단순해. **주제를 찾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는 4번 해설을 통해 알아보자.

Masterpiece #1(4, 5)

4. 정답: ⑤

M: Ruth, do you have a minute?
W: Hey, Steve! Sure. What's up?
M: I'm working on my chemistry class presentation for next week. Can you give me your opinion on my slides?
W: Okay. Let me take a look. [Pause] Hmm... It's great, but too much text can distract listeners. **How about converting some text into animation effects?**
M: I don't understand. Can you explain more?
W: Sure, instead of putting the word "increased" in text, **just use an animation effect like an arrow moving up.**
M: Cool! I wonder why I didn't think of that. **It'll be easier for people to understand.**
W: It's eye-catching. **Also, you can put even more information on fewer slides.**
M: Perfect! I'll change my slides as you proposed. Thanks a lot.

[어휘] text 문자 / distract 방해하다 / convert 바꾸다
arrow 화살표 / eye-catching 눈에 띄는 / propose 제안하다

[해설]

진하게 표시된 문장들이 정답의 근거이고,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야. ③번이나 ④번을 고른 학생들이 있으려나? 이 학생들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제를 찾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틀린 거야. 주제란 내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을 말해. 그런데 단순히 일치하는 것은 그 주제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 자세한 건 [오답 뽀개기]를 통해 알아보자.

[오답 뽀개기]

- ① 초반에 나온 chemistry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만든 선택지야. 평가원은 모든 선택지를 헛갈리게 내지 않아.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지들이 나오는 거야.
- ② text가 나오긴 하지만 음성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 ③ 청중에 대해 말하고 있어. 그리고 발표에 관한 이야기도 맞아. 하지만, 반응을 이끌어내는 발표 기법?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비슷하게나마 청중들의 이해를 높여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발표 기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프레젠테이션에서 애니메이션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말하고 있는 거야.
- ④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듣다보면 단순히 언급되는 내용의 선택지를 고를 확률이 높아. 많은 양의 text가 청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애니메이션이 청중의 이해도를 높여준다는 내용은 둘 다 있어. 근데 주제인가? 아니지.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주된 내용이 '정보의 양이 적을 때는 이해도가 어떻게, 많을 때는 어떻게'가 되어야 해.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사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언급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정답을 고르기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면 자신이 왜 틀렸는지 꼭 알아가도록 해.

◆ 5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쉬운 유형이야. 그렇지만 방심하면 틀릴 수 있어. 틀리지 않는 방법은? 절대 아닌 직업을 지워나가면서 풀어줘. 지우지 않고 놔뒀다가 그 짝이 되는 직업에 혹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중에 언급되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 제 3자이니깐 말이야.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냐. 대화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의 직업을 직접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5. 정답: ②

[Telephone rings]

W: Hello, Mr. Williams. This is Laura Johnson.
M: Hello, Ms. Johnson. **Have you checked the final version of the graduation album I sent to you?**
W: Yes, I have, and I wonder if I can ask you to edit it a little bit.
M: Sure. What can I help you with?
W: I showed the album to the principal and he said, the top and bottom margins are too large for the page height and that the number of pages is too many.
M: Hmm... I see his point. Okay, **I'll change the setting.**
W: Thank you so much. When is it going to be ready? **My students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M: It won't take that long. Maybe... two or three days, I guess.
W: Perfect. Then, I'll drop by on Thursday.
M: Okay. I'll do my best.
W: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어휘] graduation album 졸업 앨범 / wonder 궁금하다
principal 교장 (cf. principle 원리, 원칙) / margin 여백
the number of ~의 수량 (cf. a number of 많은)
setting 설정 / look forward to ~ing ~하기를 기다리다
take + 시간 표현 ~만큼 시간이 걸리다 / drop by 들르다
I have no doubt 의심하지 않는다

[해설]

진하게 표시한 문장들이 정답의 근거야. 남자가 여자에게 졸업 앨범의 최종 버전을 보냈다고 하고 있고, 여자가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 남자는 앨범 제작자로 볼 수 있어. 그리고 후반부에 여자가 자신의 학생들이 앨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는 교사인 것도 알 수 있어. 정답은 ②번이야.

[오답 뽀개기]

- ① 앨범이라고 해서 가수 앨범만 있는 게 아니야.
- ③ graduation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졸업식 연사는 아니야. 앨범을 수정하는 사람이니깐 말야.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principal(교장)이 제 3자로 언급 돼. 무슨 뜻일까? 적어도 두 사람 중엔 교장이 없다는 거야.
- ④ 아무 의미 없는 선택지야.
- ⑤ 편집 이야기가 나오지만 영상이 아니라 졸업 앨범이야. 영상이라면 페이지의 여백이나 쪽수가 나올 리가 없어.

Masterpiece #1(6[Ⓛ])

◆ 6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그림 일치 유형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볼게.

언젠가 한 번 터질 유형이니까 조심해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대로 공부한다고 해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다면 수능 영어가 이 유형 때문에 악몽의 시간이 될 수 있어.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 그림 일치에서 내가 예전부터 예언했던 부분이 나왔어. 특히, 올해 6평의 6번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정말 커. 나도 처음 문제 풀 때, 엄청 놀랐어. 그 이유는 6번 해설을 끝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

6. 정답: ⑤

W: Dad! I rearranged my room today.

M: Great job, Amy! It's a lot better than before. ① I see you have hung pictures on the wall horizontally side by side. They look great there.

W: ② And look at these stuffed owls on the shelf. The biggest one in the middle is wearing a hat.

M: They're so cute. ③ You also added blinds to the window.

W: Yes, I did. It's because too much natural light comes in through the window in the morning. ④ And how do you like my new blanket?

M: Good. There are stars and moons on it. ⑤ And what's that book on your desk? I think I've seen it.

W: Oh, it's our family photo book. I found it under the bed.

M: Really? I thought we'd lost it somewhere. Why don't we have dinner first and look it over together?

W: Great idea!

[어휘] rearrange 배열을 바꾸다 / horizontally 수평으로 side by side (면을 맞대고) 나란히 / stuffed 봉제된 shelf 선반 / blind (빛을 막는) 블라인드 natural light 자연광 / blanket 이불 / look over 훑어보다

사람이 나오는 유형에서는 위치, 자세, 행동, 복장에 유의해야 하고, 사물이 나오는 유형에서는 위치, 모양, 종류, 수량, 무늬, 장식, 문구에 유의해야 해. 이 문제는 사물이 나오는 유형이었지? ①~④번에서 헛갈렸더라도 ⑤번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도 각 선택지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했는지를 살펴볼 거야.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니까 신경 써주길 바라.

①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야. 해석을 하면 '벽에다가 사진들을 수평으로 맞대어 걸었구나'야. 에이.. 너무 꼬아서 낸 게 아니냐? 미안하지만 올해 <수능특강 영어듣기편>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야. 여기서 특히 horizontally라는 표현을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해. 'horizontal은 수평의, vertical은 수직의, diagonal은 대각선의'라는 뜻이니 꼭 챙겨 놓도록 해.

② 여기서 따져야할 부분은 선반에 '부엉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부엉이가 중간에 있는지, 그 부엉이가 모자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총 3가지야. 첫 번째 문장만 듣고 그냥 '부엉이가 있네!'라고 넘어간 학생들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확실하게 학습해주도록 해.

③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지였어.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됐으니까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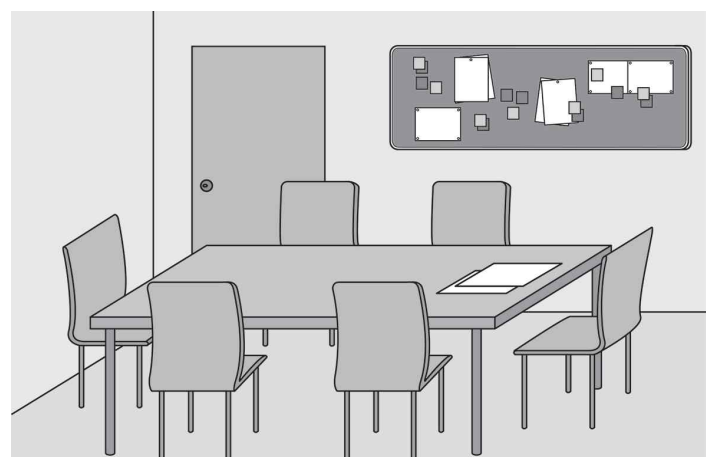
④ 사물이 선택지인데 무늬가 있다면 꼭 챙겨줘. 분명 언급할 테니까 말이야. 무늬와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을 알려줄게. 'polka-dotted는 뽕뽕이 무늬, waterdrop은 보통 위쪽이 뽕뽕하게 생긴 우리가 아는 물방울 무늬'야. 그냥 둥글둥글한 모양일 수도 있고. 특히, polka-dotted는 발음도 챙겨줘.

자, 여기까지가 6번에 대한 해설이었고,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평에서 평가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교재에 실려 있는 연습 문제 2개를 풀어볼 거야. 듣기 파일 스트리밍 링크로 들어가서 듣기 파일을 듣고 일치/불일치를 따져 보면 돼.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스포 방지 여백

Masterpiece #1(6㉞)

정답은 둘 다 **불일치**야. 의아해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천천히 설명해줄게.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알려줄게.

W: There is a box **on the** round table.

M: Yes, I hid robot toys in the box for our son.

on the와 under는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 위의 문제에서 on the를 under로 들어서 일치한다고 한 학생들 있지? 이 학생들은 관사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도록 해. on the를 under로 들으면 a box under round table이 돼. round table의 관사가 없어서 버리는 거지. 영어에서 일반 명사에 관사가 없는 건 큰 오류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아래 두 문장을 몇 번씩 읽어보도록 해.

There is a box on the round table.

There is a box under the round table.

그냥 [언더]로 들리면 on the이고, [언덜더]로 들리면 under the야.

이 문제는 내가 2016년에 처음 듣보잡을 출판했을 때부터 넣어 놓았던 문제야. 그리고 19학년도 수능 그림 일치 유형에서 이 부분을 건드린 문제가 나왔어. 스크립트의 일부를 같이 살펴보자.

W: I'm sure he will. Oh, did you buy the heart-shaped cake **on the** table?

M: Yes. I got it from Dad's favorite bakery.

W: He'll love it. What are the two boxes **under the** chair?

M: They're gifts from Grandma and Grandpa.

on the나 under the 중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준 경우는? 처음이야. 신경 쓰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수능 문제처럼 두 개를 동시에 주면 오히려 쉬워. 두 개의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 두 선택지는 모두 일치하는 선택지였어. **그런데 만약 아까 푼 연습 문제처럼 하나만 주어지는데 오답 선택지로 준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on the를 under로 들어서 일치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문제를 다 듣고 나서 '왜 답이 없어?'라는 생각과 함께 악몽이 시작되는 거야. 독해까지 망칠 수 있어.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일단, 스크립트를 볼게.

M: Our meeting room has one table and six chairs.

W: You're talking about the square table and the chairs around it, right?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square은 그냥 네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을 뜻해.** '3의 제곱'을 영어로 하면 three square이야. square이 '같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림의 테이블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른 직사각형이야. 따라서,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야. 조심해야 해.

그렇다면 만약 그림에서 정사각형의 테이블이 나오고, 스크립트

에서는 rectangular이라고 나오면 일치하는 걸까?

답은 '일치한다'이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수학적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지. 수학적으로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 할 수 있어. 게다가, 그림 상에서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 그래서 'square-shaped'(정사각형 모양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라고 해설을 했는데

올해 6평에는 내 해설을 저격이라도 하듯이,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테이블을 rectangular이라고 말했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나쳤을 거야. 아니, 거의 듣기 영역 강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정도이니 학생들 중에 이 부분에 의문을 품을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할 거야. 하지만, 나는 소름이 돋았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평가원이 명분이 생겼어. 어떤 명분? 너희들이 조금 전에 푼 연습 문제를 낼 명분. 평가원은 6평에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포함 관계는 **단지 수학적 영역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어.** 수능에 아까 푼 연습 문제를 낸다면 100% 이의 제기가 걸릴 거야. "왜 영어 시간에 수학 개념을 물어보냐?"고 따지겠지. 그렇지만 평가원은 명분이 있어 "그러면 돈 계산 문제는? 그것도 수학적인 것 아냐? 게다가 우리가 분명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차례 출제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맞았으니 아무 말 안하다가 틀리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6월 모의고사를 제대로 분석했는가?" 평가원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쪽 팔려서 아무 말 못 할 거야.

다음은 차례대로 Cambridge, Oxford, Longman 영영사전에 적혀 있는 square의 정의야.

square¹

: a flat shape with **four sides of equal length** and four angles of 90°

: having **four straight equal sides** and four angles of 90°

: having **four straight equal sides** and 90° angles at the corners

모두 square을 내가 말한 수학적 '정사각형'이라 정의하고 있어. 그런데, 위의 정의들은 각 사전에서 첫 번째 정의를 가져온 거야. 두 번째 정의를 같이 볼게.

square²

: forming **an angle of 90°** exactly or approximately

: forming **a 90° angle**, or being close to or similar to a 90° angle

변의 길이에 대한 언급 없이 각도가 90°를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러면 문제의 그림의 테이블도 'square table'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야. 왜냐하면 두 번째 정의는 도형에서 쓰이는 정의가 아니라 그냥 길이를 무시하고 각을 따질 때 쓰이는 정의라는 판단 때문이야.

Masterpiece #1(6㉔, 7)

예를 들어, 'square shoulders'는 '정사각형 어깨'가 아닌 '직각 어깨'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간단히 정리해줄게.

❶ 그림에 직각의 네모난 모양이 나왔을 때 스크립트에 rectangular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❷ 그림에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나왔는데 스크립트에 square가 나오면 틀린 거야. 명확하게 변의 길이가 다른 직사각형을 말해. 내가 낸 연습 문제의 테이블처럼 말이야.

❸ 하지만, 평가원이 수학적 정의를 무시해버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으므로, 객관식이라는 점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야 해. 즉, 다른 선택지 중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

자,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제일 긴 그림 일치 문제 해설이었어.

◆ 7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난이도는 낮지만 의외로 많이 틀리는 유형이야. 즉, 실수가 잦다는 거지. 7번마저 해설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재에 있는 핵심만 뽑아서 말해줄게.

- 발문을 잘 읽고 행동의 주체를 표시한다.
- 할 일과 부탁한 일의 차이를 구분한다.
- 이미 한 일과 할 일을 구분한다.

자세한 건 해설에 녹였어.

7. 정답: ㉔

W: Honey,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M: I'm looking for flights for our trip to Little Rock.

W: Why don't we take a train instead of flying this time?

M: I don't know. The train takes a lot longer. That wouldn't be good for the kids.

W: Really? I think they'll love the view from the train. The scenery on the way to Little Rock will be terrific.

M: That's true. This time of year is nice.

W: Plus, we can save money. So, could you look up the train schedule?

M: Sure, I'll do that.

W: Thank you, honey. Then, I'll call my friend Jenny and ask her to recommend a hotel.

M: Oh, I remember that you said she had visited Little Rock last summer. It's a great idea.

[어휘] flight 비행기 / scenery 풍경 / terrific 훌륭한
this time of year 이맘때 / look up 찾아보다

[해설]

진하게 된 문장이 근거이고, 따라서 정답은 ㉔번이야.

[오답 뽐내기]

- 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은 맞아.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건 아니야. 이미 같이 세우고 있어.
- ② 풍경이 좋을 거란 언급은 있었지만 사진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없었어.
- ③ 여자가 비행기가 아닌 버스를 타고 가자고 말을 하지만, 아직 비행기표를 예매한 상황도 아니고, 따라서 여자가 부탁할 수도 없어.
- ⑤ 여자가 친구한테 호텔 추천해 달라고 연락해본다고는 했어. 현지 호텔에 연락한다는 것도 잘못 되었고, 남자가 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스크립트가 다음과 같았다면 어땠을까?

W: Plus, we can save money. So, could you look up the train schedule?

M: Sorry, honey. I'm really busy with my work. Can you do that for me? I'll take care of making a reservation for a hotel later.

W: Well, okay.

여전히 ㉔번이 정답이 될까? 한 번 판단해봐.

스포 방지 여백

이렇게 스크립트가 출제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⑤번(현지 호텔에 전화하기)을 선택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남자가 나중에 자신이 호텔 예약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답은 여전히 ㉔번이야. '으잉??!'이라며 의아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해설에 앞서 언급했던 말을 생각해봐. 이 문제는 **남자가 할 일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야**.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을 고르는 문제도 아니지**. 이 문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고르는 문제야**.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하는 순간 정답이 확정돼. 발문을 생각 안 하고 괜히 끝까지 듣다가 틀리지 않도록 해. 사실, 스크립트 자체를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또 욕 먹을까봐 욕심을 버리고 해설에 넣었어.. (쭈굴..)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고 욕을 하는데.. 내가 예측한 문제는 결국에 시험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제발 욕하지 말아줘..

Masterpiece #1(8, 9㉓)

◆ 8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7번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맞은 줄 알았는데 채점해보니 틀리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야. 딱 한 마디만 할게.

제발 답이 나온 다음에 넘어가.

8. 정답: ㉓

W: Alan, what happened to your phone? There are cracks all over it.

M: I dropped it yesterday at the bus stop.

W: I think you need to have it repaired.

M: Well, it's still working fine, and it costs too much to fix it. I would rather buy a new one.

W: Then, why don't you do that? **Do you need more money or permission from your parents?**

M: No, it's about the commitment plan. There will be a cancellation fee if I change my phone during the stated period.

W: How many months are left?

M: About 2 months. To be more exact, 1 months and 23 days. And yes, I'm counting.

W: I just hope that it won't break down completely before that day comes.

M: Knock on wood, Sera. Don't jinx me!

[어휘] crack 금, 균열 / would rather V 차라리 V하다
permission 허락 / commitment plan 약정
cancellation fee 취소 수수료, 위약금 / stated 정해진
To be more exact 더 정확히 말하자면
break down 고장 나다 / Knock on wood 부정 타지 마
Don't jinx me 재수 없는 소리하지 마

[해설]

많은 학생들이 이 유형을 대충 듣고 많이들 틀려. 특히,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푸는 학생들이 그래. 자신들은 정답이 나왔다고 판단해서 넘어갔지만 알고 보면 틀려. 그러면, '아, 이제부터 듣기를 할 때는 듣기만 하자!' 이렇게 생각해버려. 과연 이게 맞을까? 틀린 이유는 정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넘어가버린 거니까, 언제 정답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제대로 안다면 독해로 넘어가도 상관없어. 그런 의미에서 ①번이나 ②번을 고른 학생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해.

이 유형에서의 정답은 남자가 그 이유를 말할 때까지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여자가 묻고 있는 거야. 정답이 될 수 없어. 남자의 응답을 들어봐야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여자의 질문에 남자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직접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 이유는 약정(commitment plan)이고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야. 그런데 남자가 직접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바로 고른 학생들은 잘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commitment plan이 약정인 줄 몰랐을 테니까. 뒤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했을 거야. 그렇지?

야이, 바나나기차야!! 이런 단어는 안 나와!!

#\$%#7\$! (대충 심한 욕이라는 뜻)

응, 나와^^ 이거 연계 교재에 있는 표현이거든?

올해 마스터피스 듣기 스크립트에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표현이 있다? 연계 교재나 기출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제발~~ ~~욕부터~~ ~~박자~~ ~~말고~~ ~~ㅠ~~ 왜냐하면 올해는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연계 교재나 평가원에 있는 표현들로만 만들었거든.. 욕심을 버리기로 했어.

◆ 9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유추하기 유형과 마찬가지로 많이들 틀리는 문제야.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듣기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난이도 5 이상의 문제를 만나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새롭게 나와도 틀려. 사실, 기출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수학은 1994년도 기출부터 푸는데.. 영어 듣기는 왜..?) 그래서 교재에는 평가원 10개년 + 서울시 교육청 8개년 중에서 필수적으로 풀어야하는 선별 문제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유형 예상문제를 수록해놨어. 이 문제들을 여기에 다 수록해버리면 아마 독해 해설은 못 볼 거야.. 그래서 이 중에 작년에 내가 적중시켰던 신유형 문제만이라도 9번 해설 다음에 같이 다뤄볼 거야. 기대해도 좋아.

자, 이제 9번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 단위에 유의하라. 단위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 할인의 범위에 유의하라. 일부인지, 전체인지 꼭 확인하라.
- 10% 계산법을 꼭 숙지하라. 절대 틀리지 않는 계산법이다.

9. 정답: ㉑

M: Hello,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W: Yes, I'm looking for a turkey for Thanksgiving Day this Sunday.

M: Okay. How many people will be having turkey?

W: Hmm... There will be at least 5 people.

M: Then, how about this medium size one? It's big enough for all of you. **The regular price is \$20, but we offer 20 percent off today on turkeys.**

W: Great. I'll take it.

M: Do you need anything else?

W: Yes, I also need some onions and sweet potatoes.

M: I'm really sorry. We sold the last of the sweet potatoes in stock 10 minutes ago. What about regular potatoes instead?

W: Well, it's better than nothing. How much are they?

M: **Both onions and potatoes are \$1 each.**

W: **I'll take 2 onions and 3 potatoes.**

M: So, one medium size turkey, 2 onions and 3 potatoes. How would you like to pay?

W: I'll use my credit card. Here you go.

Masterpiece #1(9Ⓣ)

[어휘] turkey 칠면조 /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at least 최소한 / medium 중간의 / regular price 정가
 sweet potatoes 고구마 / in stock 재고 중, 재고가 있는
 regular potatoes 감자

[해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이 문제를 통해서 할인 범위와 10% 계산법을 배울 거야.
 남자가 칠면조의 가격을 설명하면서 할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 할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야? 칠면조까지만이야. 만약에 남자가 **we offer 20 percent off today on all items in the store.** 이라고 말했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양파와 감자에도 할인을 적용시켜야 해. 역시나 나는 욕먹기 싫어서 문제는 쉽게 내고 해설에서 다 말해주고 있어.. 할인의 범위는 정말 정말 중요해.
 그리고 이제 10% 계산법을 알려줄게. 10%는 어떤 가격이든 0을 하나 빼면 돼. \$100의 10%는 \$10. \$150의 10%는 \$15. 쉽지? 이 문제에서는 \$20의 10%인 \$2를 구한 후, 20%는 그의 두 배니까 \$4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어. 괜히 분수 계산하다가 틀리지 말고, 꼭 10% 계산법을 쓰도록 해. 그래서 정답은 ①번($[20-4] + 5 = \$21$)이야.

연습할 수 있도록 예제 몇 개 남겨줄게.

1. \$150를 30% 할인한 가격은? \$ _____
2. \$200를 15% 할인한 가격은? \$ _____
3. \$300를 25% 할인한 가격은? \$ _____
4. \$400를 30% 할인한 가격은? \$ _____
5. \$140를 15% 할인한 가격은? \$ _____

스포 방지 여백

1. \$150를 30% 할인한 가격은? $150-45 = \$105$
 150의 10%는 15
 따라서 30%는 $3 \times 15 = 45$
2. \$200를 15% 할인한 가격은? $200-30 = \$170$
 200의 10%는 20, 5%는 그 절반인 10
 따라서 15%는 $20 + 10 = 30$
3. \$300를 25% 할인한 가격은? $300-75 = \$225$
 300의 10%는 30, 5%는 그 반인 15
 따라서 25%는 $30 + 30 + 15 = 75$
 ♪ 다른 풀이
 25%는 1/4이다. 300의 1/2은 150. 1/4는 그 반이므로 75
4. \$400를 30% 할인한 가격은? $400-120 = \$280$
 400의 10%는 40
 따라서 30%는 $3 \times 40 = 120$

5. \$140를 15% 할인한 가격은? $140-21 = \$119$
 140의 10%는 14, 5%는 그 절반인 7
 따라서 15%는 $14 + 7 = 21$

5번 같은 경우 분수로 계산하면..? 계산이 오래 걸려서 다음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보면 약분하다가 실수하고.. **악몽 시작.** 앞으로는 고생하지 말고 10% 계산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 9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자랑~~~타~임마.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9번을 틀렸어. 왜냐? 신유형이 나왔거든. 어떤 표현인지 스크립트 일부를 통해 알아보자.

W: Great. My husband and I love reading in bed, and it would be a convenient place for our books. **How much is it?**
 M: It's \$40. **But if you buy two, you'll get a 50% discount on the second one.**
 W: So I'd get the second one at half price?
 M: Exactly.
 W: **Then, I'll get two.**

수능 영어 듣기 역사상, 처음 나오는 표현이었어. 근데 내가 있는 가능 세계에는 역사상 처음 나오는 표현이었을까?

M: I agree. **How much are they?**
 W: They're \$15 each and as an opening promotion, **if we buy 2, they give us a 20% off of one of them.**
 M: Great deal! **Let's buy two of them.**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1년 전에 내가 직접 출제했던, 그리고 출판까지 했던 모의고사에 실린 문제의 스크립트야.

19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시작으로
 19학년도 수능 내 독학서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20학년도 6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저격(?)당하고
 책에서 계속 강조했던 15%, 50% 구분이 나오고.

평가원 시험 3번 연속, 4문제.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기를.

Masterpiece #1(10, 11㉔)

◆ 10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9번 해설 보느라 지쳤지? 쓰는 나는...??!! 간단히 설명할게.

- 한 번에 두 개의 정보가 주어질 때 조심하라. (듣기의 공백)
- 의문문만 기다리지 마라.
- 숫자 정보에 속지 마라.

자세한 건 앞으로의 1~3회 해설을 통해.

10. 정답: ⑤

[Telephone rings.]

M: Good afternoon, this is Peter Parker at the Denver community center.

W: Hi, Mr. Parker. ① I'm thinking of enrolling in the beginner's calligraphy class instructed by Jennifer at the center.

M: Do you want to know anything about the class?

W: ② I'd like to know when the class starts.

M: The class meets from the beginning of July through September, but we're still deciding on the exact start day with our instructors.

W: ③ Then, can I at least ask you what day is the class?

M: Sure. The class is to meet twice a week: on Tuesday evening 7 to 8 and Saturday morning from 9 to 11.

W: It's perfect! ④ How much is the tuition?

M: It's \$50 per month, and it must be submitted with a completed registration form.

W: All right. Thanks so much. Have a good day.

M: My pleasure.

[어휘] enroll 등록하다 / instruct 가르치다 / instructor 강사
tuition 수강료 / submit 제출하다

[해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정답의 근거야. 다른 건 다 언급되었지만 ⑤번(수업 준비물)은 언급되지 않았어. 마지막에 수업료와 함께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이걸 수업 준비물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겠지?

◆ 11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학생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유형이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거든. 적어도 이때까지 기출된 표현은 외워줘야 해. 그리고 간접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해. 특히 시간에 관해서 말이야. 이 부분은 11번 해설을 끝낸 후에 기출된 표현들을 통해서 알아볼 거야.

11. 정답: ④

W: Hello, students. This is Lynn Adams, your algebra teacher.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upcoming Pi-day Contest. ① Since 2014, our school has officially started celebrating this day by holding the contest on March 14th. ② However, this year's contest will be held on March 15th because March 14th this year is on a Sunday. ③ It's open to all students, but registration is required in advance. The deadline to register is the 9th day of March. The rules are simple. All participants will have one, and only one chance to recite the digits of Pi. ④ And, there'll be 3 winners, one student from each grade who can recite the most digits in the correct sequence. And prizes for the winners? ⑤ The Pi-day Contest winners get pizza pies! Why don't you join and have fun?

[어휘] algebra 대수학 / upcoming 다가오는 / officially 공식적으로
celebrate 축하하다 / hold 개최하다 / in advance 사전에
one and only one 단 한번의 / recite 외워서 말하다
digit 숫자 / correct sequence 올바른 순서

[해설]

스크립트에서는, 각 학년당 한 명의 우승자를 뽑아서 총 3명의 우승자를 뽑는다고 말하고 있어. 따라서, 한 학년당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④번이 일치하지 않아. 이 표현은 평가원에서 출제할 적이 있는 표현이야. 심지어 작년에도. 이 표현을 몰라서 틀렸다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11번 유형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말과 같아. 이제, 나머지 선택지들을 한번 살펴볼게.

- ① 당황한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2014년을 twenty-fourteen이라고 표현했으니깐.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998년을 one thousand nine hundreds ninety eight이라고 하지 않고, nineteen-ninety eight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표현이 아니니 꼭 알고 있길!!
- ② 일치하지 않다고 한 학생들 있지? 그 이유가 바로, 단어만 들고 풀기 때문이야. 스크립트에 Sunday가 나왔지만 3월 14일을 언급할 때 나온 거야. 대회는 3월 15일에 열린다고 했어. 그러면 대회는 무슨 요일에 열릴까? 월요일이지. 따라서, ②번은 옳은 선택지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시할 때 주의해야 해. 관련해서는 해설이 끝나고 자세히 알아볼 거야.
- ③ in advance라는 표현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유의어에는 beforehand, previously, a head of time, priorly가 있는데 앞에서 뒤로 갈수록 나올 확률이 낮다고 보면 돼.
- ⑤ Pi(파이) Day라서 피자 파이를 상으로 준다고 하네. 피자 먹고 싶다~

자, 이제 간접적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해. 특히 이 문제 ②번에서 가우똥한 학생들은

집중 집중 집중!!!!!!!

Masterpiece #1(11㉔, 12)

다음 세 문장을 읽어봐. 모두 평가원과 교육청 내용 일치 유형에
기출된 표현이야.

It's a **one-week** tour which goes from July 25th to July 31st.

It's a **six-day** program beginning on the first day of June.

You can sign up until **one hour before** the competition starts.

느껴지는 거 없어? 다시 한 번 읽어봐.

첫 번째 문장은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말해줬지만 그 다음에 처
음과 끝 또한 직접 말해주고 있어.

두 번째 문장은 6일이라는 기간을 말해 준 다음에, **처음만 직접
말해주고 있어.** 무슨 말일까? **끝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야 한다는 거야.** 6일간의 프로그램인데 6월 1일에 시작하면 끝나
는 날은? 6월 6일이야.

세 번째 문장은 아예 기준이 없어. 어떻게 된 걸까?

The main event, the swimming competition, will be held at **3 p.m.**
You can sign up until **one hour before** the competition starts.
③ 수영 대회 참가 신청은 당일 **오후 3시**까지이다.

기준은 **앞 문장에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3 p.m.이
나왔다고 해서 ③번을 맞다고 선택한 학생들은 틀렸던 문제야.
참가 신청은 **오후 3시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까지였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선택지를 통해 '까지'와 관련된 중요한 내
용도 다뤘었지? 이 부분 꼭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해. 책이 없
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질문방을 통해 연
락해.

◆ 12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표 유형은 이유를 고르는 유형과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만 않으면 돼. In other words, 제안만으로 풀면 안 돼. 제안에
대한 **대답**을 듣고 선택지를 제외시켜야 해.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완곡한 거절**이야. 이 건 돈 계산 유형에
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정확하게 No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거절을
하는 표현이 나올 때 파악할 수 있어야 해.

이 두 가지를 문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

12. 정답: ③

M: Welcome to Lisa's Kitchen.

W: I'm looking for some coffee cup sets for my mother's
birthday.

M: Let me show you our five top-selling sets. ① **What's your
budget range?**

W: **Well, I think more than \$80 is too much.**

M: Okay. You still have 4 options left. ② **How about this set?**
It comes with a tablecloth.

W: **Well, she bought a new tablecloth recently.**

M: I see. Then, let's think about the design. ③ **Does she
like flowers?**

W: **She already has many cups with flower patterns. I want to
buy her something different.**

M: Okay. ④ **Now, between these two remaining sets, which
one do you think she'd like better?**

W: **She likes to have coffee with her friends. So, I think
she would prefer the set with more cups.**

M: **Alright. Then this set would be best.**

W: Great, I'll buy it. Thanks for your help.

M: My pleasure.

[어휘] top-selling 가장 잘 팔리는 / budget range 예산 범위
tablecloth 식탁보 / remaining 남은

[해설]

①에 대한 **여자의 대답**을 통해 ⑤번은 OUT!

②만 들으면 정답은 바로 ④번이 돼. 하지만 **여자의 대답**은
Well, she bought a new tablecloth recently.였어 무슨 말일까?
최근에 새로 샀으니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완곡한 거절을 한
거지. 그러니 오히려 ④번이 OUT이야.

③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대답**을 들어야 해. 여자는 완곡한 거절
을 한 다음에 다른 걸 사고 싶다고 했어. 따라서 ②번도 OUT!

④에서는 두 개 중에 어떤 걸 원하는지 물어보니, **여자가 직접
컵이 더 많은 걸 원한다고 했어.** 그리고 직원도 별말 없이 동의
를 하므로 정답은 ③번이야. 만약 여자가 직접 그렇게 말했는데,
남자가 또 다른 말로 꼬드킨다면? 그러면 그 이후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13~14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유형이야. 1~2번의 확장판이라
생각하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 하지만, 오히려 13~14
번이 1~2번 보다 쉬워. 왜냐하면 1~2번이 그냥 획 지나가는 반
면에, 13~14번은 적어도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지를 초반부와
중반부에서 파악할 시간은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또 **선택지 미리 보기의 중요성**이 나와. 초반부와 중반부
에서 어떤 주제로 말하는지 파악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선택지
를 필수적으로 봐줘야 해. **앞네모와 뒷네모.** 기억하지? 이게 얼
마나 중요한지는 해설을 통해 알려줄게.

그리고, 선택지 '해석'이 막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내 책으로 공
부하는 학생이든, 그렇지 않은 학생이든 무조건 연락해줘. 자료
를 줄게. 1시간 반만 투자하면 선택지에서 막힐 일은 없을 거야.

Masterpiece #1(13)

13. 정답: ①

M: April, what's wrong? You look kind of down.
 W: Hi, Sean. Mr. Howard embarrassed me in class again by asking me a difficult question.
 M: **I don't think he meant to embarrass you.**
 W: What do you mean by that?
 M: Maybe it's his teaching strategy.
 W: Teaching strategy? How can embarrassing his students be a strategy?
 M: **Asking students difficult questions helps promote the students' thinking skills by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find the answers on their own.**
 W: Well, come to think of it, when he asks questions, I do end up thinking more to find the correct answer.
 M: That's what teachers aim for when asking questions, especially questions that are hard to answer.
 W: So do you believe it helps us improve our critical thinking skills?
 M: _____

- ① 정확해. 그것이 그가 너에게 그냥 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야.
- ②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 ③ 물론이지. 널 계속 괴롭히는 것이(문제가) 이거야?
- ④ 미안해. 내가 널 당황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 ⑤ 완벽해! 네 기술은 비판을 넘어섰어(비판의 여지가 없어).

[어휘] kind of 약간 / look down 맥이 빠진
 embarrass 난처하게 하다 / strategy 전략
 promote 증진시키다 / thinking skill 사고력
 come to think of it 생각해보니 / end up ~ing 결국 ~하다
 aim for 목표로 하다 /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Definitely 정확해 / bother 괴롭히다
 beyond criticism 비판을 뛰어넘은, 비판의 여지가 없는

[해설]
 여자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남자가 여자에게 이유를 묻고 있어. 그러자 여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말해. 그러자 남자가 선생님은 난처하게 만들 의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자에게 설명해주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는지 남자한테 물었어. 따라서, 여자의 말이 맞다고 하며 그것이 그(선생님)가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①번이 정답이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해설이야. 이제 미리 보기의 진수인 앞네모와 뒷네모의 중요성을 보여주도록 할게. 1~2번에서처럼 각 선택지의 앞네모를 살펴볼 거야.

① **Definitely.**
 '정확해'라는 뜻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까? 상대방의 말에 대한 동의나 인정, 긍정을 표시할 때 써. 그러니 이 앞네모를 통해서, 여자의 마지막 말이 남자의 생각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실제로, 여자의 마지막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생각

해?'였고 뒷네모 '그게 그가 너에게 그냥 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야.'이니까 ①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② **It's not your fault.**
 앞네모 자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어떤 문제, 또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게 여자와 관련된 상황이 나올 거란 것을 유추할 수 있어. 그리고 남자가 위로를 해주는 상황이지. 뒷네모를 보니 여자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탓하고 있는 뉘앙스여야 ②번이 정답이 될 수 있어.

③ **Sure.**
 '물론이지.'라는 뜻이야. 주로, 상대방의 부탁이나 제안을 수락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야. 이 앞네모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거기다가 뒷네모를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봤다고 유추할 수 있어.

④ **I'm sorry.**
 먼저, 이 표현에 대한 오해를 짚어볼게.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표현을 사과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유감을 표할 때 쓰는 표현이야.** 유감을 표하는 상황 안에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과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제안을 거절해야 할 때 등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 물론, ④번에서는 사과하는 의미로 쓰였어ㅎㅎ 뒷네모를 보니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자신이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는 거겠지?

⑤ **Perfect!**
 이 표현은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겠지?. 뒷네모인 '네 실력은 비판을 넘어섰어.'가 해석이 까다롭긴 해. 하지만 앞네모에 비추어 해석을 해보면 '비판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역이 가능해져. 앞네모 뒷네모의 개념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자 이제, [오답 뽀개기]를 보면서 마무리해보자.

- [오답 뽀개기]
- ② 여자가 의기소침한 내용이 나오긴 해. 하지만 그건 초반부의 내용이야. 후반부는 선생님의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어. 게다가 여자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탓하는 말도 아니었어.
 - ③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부탁을 한 게 아니야.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되려면, 대화는 여자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계속 안 풀려서 답답한 마음에 남자를 찾아온 상황이어야 해.
 - ④ 여자를 난처하게 한 사람은 대화의 남자가 아니라 제 3자인 선생님이야. 입장을 바꾸는 선택지는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그리고 ②번과 마찬가지로 embarrass와 관한 이야기는 초반부에 나온 거야.
 - ⑤ 여자의 마지막 말에 critical과 skills가 나오는 것을 이용해 만든 선택지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선택하기 딱 좋은 선택지야. 아까 앞네모를 살펴보면 다른 것처럼 ⑤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기술이 아주 뛰어난 상황이 나와야 해. 하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

Masterpiece #1(14)

14. 정답: ⑤

M: What are you looking at, Jenny?
 W: A picture of the hats I knitted to donate for babies in developing countries.
 M: Wow, you knitted these? They're really nice.
 W: Yes, I did. But unfortunately I wasn't able to donate them.
 M: Why not? You must have spent a lot of time knitting them.
 W: It did take me ages. I'm not very good at knitting.
 M: I think they're great. You can totally donate them!
 W: I'm happy enough with how they turned out, but I missed the donation deadline.
 M: Oh, there was deadline?
 W: There usually is. I couldn't finish up making the hats by the deadline.
 M: I'm sorry to hear that. But you finally made them, though.
What will you do with the hats then?
 W: _____

- ① 아냐.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 ② 멋있어! 그 모자는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 ③ 정말 고마워. 내가 그것들을 잘 활용할게.
- ④ 솔직히 말해서, 난 모자보다 장갑을 사고 싶었어.
- ⑤ 아마 내 언니가 아이들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할 거야.

[어휘] knit 뜨개질을 하다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 (cf. developed country 선진국)
 take ages 오래 걸리다 / be good at 잘하다
 turn out 결과가 나오다, 모습을 드러내다
 make good use of 잘 활용하다 / honestly 솔직히 말해

[해설]
 여자가 개발도상국의 아기들을 위한 모자를 뜨개질로 만들었는데 기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자, 남자가 그 이유를 묻고 있어. 그 이유는 기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거야. (너무 안타깝다..) 그러자 남자가 여자에게 모자를 다 만들었긴 했으니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고 있어. 따라서, 그 모자들을 조카들(언니의 아이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⑤번이 정답이야. 원래 연계 교재에서는 I'm going to give them to my niece.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간접적인 표현으로 바꿔봤어. 왜냐하면 평가원이 그런 경향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는 2, 3회 문제를 풀고 그 해설을 읽다보면 알게 될 거야.

- ① No.
부정의 말이 앞네모로 온다면, 뒷네모가 상대방의 마지막 말과 반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뒷네모가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니깐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마지막 말이 '어렵다'라고 나와야 해.
- ② Wonderful!
완전히 상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어. 뒷네모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남자가 새 모자를 사서 써본 상황을 떠올릴 수 있어. 여자가 이 말을 하고 있으니 남자가 모자를 쓴 거야.

③ Thanks a million.
누가 봐도 여자가 남자에게 감사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어. 뒷네모를 보니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걸 선물로 준 것 같아. 그것들(them)을 잘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야.

④ Honestly,
Actually나 Honestly는 뉘앙스가 담겨있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표현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았다가 결국 드러낼 때 주로 써.

⑤ Maybe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야. 여기서도 '자신의 언니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으니, 여자가 그냥 생각해본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

- [오답 뽀개기]
- ①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는 초반부와 중반부에 나왔던 이야기야.
 - ② 그 누구도 모자를 쓰지 않았어. 긍정적인 상황도 아니야.
 - ③ 여자는 남자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오히려 여자가 제 3자에게 모자를 주려다가 주지 못한 상황이야.
 - ④ 모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아. 그리고 여자는 모자를 구입한 것도 아니야.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언급하고 갈 문제가 있어.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야.

M: Emily,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 I'm going out for dinner to celebrate my friend Jenny's birthday.
 M: Sounds fun. Did you get something for her?
 W: _____

- ① Sorry. I already ate dinner.
- ② No. I've never met him before.
- ③ Sure. Thanks for the invitation.
- ④ Yes. I bought a box of chocolates.
- ⑤ Good. I hate working on weekends.

보다시피, 스크립트 어디를 봐도 him은 없어. 하지만 선택지에는 her이 아닌 him을 적어놨어. 평가원이 제 3자에 대한 성별로도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조심하도록 하자!

본 문제 ③번에 보면 th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it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 근데 욕심을 버리고 해설지에서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냥 them으로 출제했어. 제 3자의 성별로 장난을 칠 수 있다면, **영어에서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수/복수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정말 말이 될 것 같은 선택지를 두 개를 주면서 하나에 단수/복수 장난을 쳐서 정답을 고르게 만든다면 정말 많이들 틀릴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 수능은 한 번 뿐이니까. 심지어 듣기는 휘발성(일회성)이 강해서 정말로 단 한 번에 결정돼.

Masterpiece #1(15)

◆ 15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유추하기 유형 중 마지막 유형이야.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미리 읽어야 해. 다른 유형이랑 다른 점은 스크립트가 대화 형식이 아닌 서술 형식이라는 거야. 이 서술 형식은 또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있어.

① 등장인물 소개 및 배경 제시

등장인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 처음에 한 사람에게 대해 소개하면 뒤에 다른 한 사람이 더 나오고, 두 사람에게 대해 소개하면 제 3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보통 학생(친구)-학생(친구), 학생-교사, 자녀-부모의 관계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면 좋아.

② 문제 사건·상황 발생

어떤 사건·상황이 있어야 그에 대해 해줄 말이 있겠지? 어떤 사건·상황인지 정도만 파악해두면 돼. 문제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로 분류하기는 힘들어.

③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위로/충고/질문

13~14번에서 후반부에 정답의 근거가 있듯이 15번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만 잘 들어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③의 문장과 정답 선택지를 비교해보면 같은 말이지만 단어만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실제 문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5. 정답: ②

M: ① Chris is a sophomore in university and Kate is his close friend. Although they go to the same university, they have different majors. Chris studies engineering and Kate studies astronomy. Last winter, Chris went to New Zealand and was fascinated with the numerous shining stars in the night sky. So, Chris is taking an astronomy course this semester. While writing a report as an assignment, Chris asks Kate for advice. ② Kate looks over what Chris has written and discovers that there is out-of-date information. She also figures out that that is because the book Chris has been consulting was published years ago. ③ Knowing that science is always changing and evolving, **Kate wants to tell Chris that he should refer to more recently published book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ate most likely say to Chris?

- ① 나는 한 번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싶어.
- ② 너는 가장 최신 과학 자료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 ③ 내 보고서에 대한 네 피드백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 ④ 내가 그 책을 숙제를 위해서 빌려도 될까?
- ⑤ 이 책에 있는 사진들은 정말 눈이 가.

[어휘] sophomore 2학년 / engineering 공학 / astronomy 천문학
fascinate 유혹하다, 매혹하다 / numerous 수많은
assignment 숙제 / out-of-date 오래된 (=obsolete)
figure out 알아내다 / consult 참고하다, 참조하다
evolve 진화하다 / refer 참고하다, 참조하다

the latest 가장 최신의 / material 자료

[해설]

① 등장인물 소개 및 배경 제시

Chris와 Kate가 같은 대학을 다니지만 전공은 다른 친구 사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Chris가 천문학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지.

② 문제 사건·상황 발생

문제가 발생했어. Chris가 쓴 보고서에 오래된 정보가 있는 걸 Kate가 알아낸 거지. 그 원인이 Chris가 참고한 책이 수년 전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③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위로/충고/질문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렇지. 이 부분을 알려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점이 오래전에 출판한 책을 참고한 것이니 해결책은 좀 더 최신에 출판된 책을 보는 거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정답의 근거야.

Kate wants to tell Chris that he should refer to more recently published books.

= ② You'd better use the latest scientific material.

③의 내용만 제대로 들어도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①, ②도 챙겨줘야 해. 만에 하나 ③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①, ②를 통해서 유추해서라도 정답을 골라야 하니깐 말야. 자, 이제 오답 선택지들을 살펴해보도록 할게.

[오답 뽀개기]

- ①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 ①번이 정답이려면 여러 가지를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다보니 문제점이 생긴 상황이 나와야 해. 스크립트를 봤을 때, Chris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천문학을 배우긴 하지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 아니야. **게다가!** 주어가 I이기 때문에 Chris가 아닌 Kate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나와야 해.
- ③ 평가원이 자주 쓰는 오답 선택지 유형이야. ③번은 Kate가 Chris에게 **피드백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Chris가 Kate에게 할 말로 적절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피드백을 주고 난 후가 아니야. **지금** 주려고 하는 상황이지. 그리고 이런 오답 선택지 유형은 입장이 바뀌어 있어. 피드백을 준 사람은 Kate인데 ③번에서는 Kate가 Chris에게 피드백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
- ④ 지금 오래되어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책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전혀 말이 안 돼. 만약에 Kate가 Chris가 작성한 보고서의 참고 문헌을 살펴봤는데 자신이 예전부터 찾던 책이었다면 ④번이 정답이 될 수 있었을 거야.
- ⑤ 뜬금없는 사진 타령..? 절대 아니야.

Masterpiece #1(16~17)

◆ 16~17번을 해설하기에 앞서.

두 번 들려주는 유형이야. 하지만 한 번만 듣고 풀 수 있어야 해. 중·하위권 학생들은 한 번에 푸는 걸 어려워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16번의 주제 찾기는 글의 초반부에서 끝나.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한 예시가 나열될 때, 17번을 풀면 돼. 예시를 들으면서 주제를 찾는 게 아냐. 주제는 이미 앞에서 나왔어. **즉, 16번과 17번은 동시에 푸는 문제가 아니야. 차례대로 푸는 문제야.**

[16~17]

W: Hello, students. Previously, we discussed how climate change can affect human life. Today, I'll talk about the efforts being made by many countries to cope with this change. First, the U.S. has taken some actions at the federal level to curb emissions, including new nationwide fuel-efficiency standards for cars and light trucks. Next, Brazil's National Climate Change Plan is focused on expanding renewable electric energy sources and increasing the use of biofuels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The country is focusing heavily on reducing deforestation rates, too. Under severe climate impact, Australia has also set a national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 percent below 2000 levels by 2020. By and large, Australia has met those targets, mostly by reducing deforestation and land clearing. Lastly, South Africa, a major contributor to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frica, is now studying cleaner energy options and more energy-efficient alternatives. Now, we'll discuss how we can play a role as individual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어휘] previously 이전에 /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affect 영향을 미치다 / cope with 대처하다
take actions 조치를 취하다 / federal level 연방 차원에서
curb 억제하다 / emissions 배기, 배출
nationwide 전국적인 / standard 표준 / heavily 비중 있게
severe 심각한 / greenhouse gas emission 온실가스 배출
contributor 원인, 기여자 / deforestation 산림 파괴
land clearing 개간 / alternative 대체재 / measure 조치
misconception 오개념, 통념 / renewable 재생 가능한
awareness 인식 / severe 심각한 /

[해설]

16. 정답: ①

- 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
- ② 재생 에너지에 대한 오해들
- ③ 지구 온난화에 대한 증가하는 인식
- ④ 산림 파괴가 동물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들
- ⑤ 아프리카 내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

회색 바탕은 도입부, 진한 글씨는 주제문, 밑줄은 부연 설명이야.

Today, I'll talk about the efforts being made by many countries to cope with this change.

= ① measures taken against climate change

예시가 4개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어. 그래서 주제는 앞부분에서 빨리 확정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오답 뽀개기]

- ② 독해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야. 그냥 misconception이 아니라 misconceptions야. 그러려면 잘못된 통념이 최소 2개 이상은 나와야 해. 그리고 이 유형 특성 상 보통은 4개가 나와. 그런데 이 문제의 스크립트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 통념 자체도 말하고 있지 않고.
- ③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되려면, '증가하는 인식'이 나와야 해. 즉, 과거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이 A정도 였는데, 이제는 B만큼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해.
- ④ ②번과 마찬가지로. impacts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미치는 여러 영향들이 나와야 해. 하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만약 ④번이 정답이었다면 예시로 여러 가지 동물이 나왔을 거야. 17번의 발문도 언급된 동물로 바뀌었을 테고.
- ⑤ 범위가 틀렸어. 선택지는 범위를 Africa로 한정 지었지만 실제 스크립트에서는 여러 나라가 각자 자신들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17. 정답: ④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④번(South Korea)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야.

끝!

책을 보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런 듣기 해설은 처음 봤을 거야.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면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야. 그러니 최소한 3회분 해설에 나오는 개념 또는 조심해야 할 부분만큼은 시험장에 꼭 가져가 줘.

2회에서 다시 만나자 :) 선T의 해설도 꼼꼼히 읽기를!

현실이 꿈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꿈이 현실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_조지 무어